

# '무주산골영화제' 철저한 방역 속 성료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기 국악 수강생 모집

29개국 95편 영화 상영·공연 등 펼쳐져... 이동우 감독 '셀프-포트레이트 2020' 2관왕

코로나19 상황 속 사전예약제로 운영이 되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지난 13일 7일 간(6.3.~6.11.~13.)의 일정을 모두 안전하게 마무리했다.

황인홍 조직위원장(무주군수)은 "올해 영화제의 가장 큰 공로자이자 숨은 주역은 누가 뭐래도 관객여러분"이라며 "영화제 예약부터 방역수칙 준수까지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힘들었을 텐데 그 수고를 기꺼이 감내해준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주니까 가능한 산골영화제를 만들어 지역을 살리고 영화발전에 기여하는 축제로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주산골영화제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총 2,300여명이 개막식부터 영화 상영 및 공연장을 다닌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무주청소년수련관 폐막식 무대에 선 유기하 집행위원장은 "올해는 관객이 있는 영화제를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사전예약으로 준비했던 티켓이 모두 매진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무주산골영화제의 저력과 미래를 확인했다"며 "코로나19로 영화제는 물론이고 공연 등 전국 단위 행사들이 숨 죽어있는 상황에서 무주산골영화제가 숨통을 틔웠다"는 게 가장 기쁘고 큰 성과였다고 밝혔다.

한편, 뉴비전상, 나봄상, 영화평론가상, 아빈 크리에이티브상 등 4개 부문을 시상한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 시상식에서는 이동우 감독의 <셀프-포트레이트 2020>가 뉴비전상(대상 상금 1천만 원)과 영화평론가상을 수상하며 2관왕에 이름을 올렸다.

뉴비전상은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인 '창' 섹션에 오른 9편의 영화 중 한국영화의 미학적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시선과 도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영화적 비전을 보여준 최우수 영화에 수여하는 것으로, <셀프 포트레이트 2020>는 장건재 감독 등 심사위원으로부터 "이 영화의 긴장감이야말로 다큐멘터리 실천의 핵심을 보여 준다"며 "168분이라는 시간 동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긴장감을 담았던 이동우 감독이 앞으로 더 많은 불편한 질문과 답을 구하기를 기대한다"는 응원을 받았다.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 시상식에서는 뉴비전상, 나봄상, 영화평론가상, 아빈 크리에이티브상 등 4개 부문을 시상했다. 이동우 감독의 <셀프-포트레이트 2020>가 뉴비전상과 영화평론가상을 수상하며 2관왕에 이름을 올렸다.

남다른, 이나라, 이도훈 영화평론가 3인이 선정한 영화평론가상(상금 3백만 원) 심사위원들은 "이 작품은 노숙인 빈곤, 알코올 중독 같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면서도 그것들을 대상화하지 않았다"며 "우리 시대가 망각하거나 잃어버린 주인의식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되살려내는 도전정신을 발휘해준 <셀프-포트레이트 2020>를 평론가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신설된 아빈 크리에이티브상(상금 2백만 원/후원:아빈엔터테인먼트)은 '창' 섹션에서 상영되는 영화들 중 연출을 제외한 분야(프로듀싱, 촬영, 미술, 음악, 편집, 연기, 각본 등)에서 특별하고 돋보이는 성취를 거둔 영화의 스태프 또는 배우에게 주는 상으로 <돌고래 돌고래>의 촬영감독(촬영, 편집, 컬러리스트) 스톤 존 스톤(Stone Johnston)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상금 5백만 원이 수여된 나봄상(감독상/후원:나봄리조트)의 주인공은 <중좌역>을 연출한

권민표, 서한술 감독으로 '창' 섹션에서 상영된 영화의 감독들 중 감독 자신만의 확고하고 개성 있는 영화언어를 통해 뛰어난 연출력을 보여줬다는 호평을 얻었다.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지난 6월 3일 개막해 무주산골영화관과 무주청소년수련관, 전통생활문화체험관 등 시내 3곳과 등나무운동장, 덕유산국립공원 대피소 등 야외 2곳에서 진행됐으며 29개국 95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무주산골영화제 세 번째 게스트 액터로 참여했던 안재홍 배우, 세이브칠드런과 함께 하는 세네마 토크를 비롯해 운판만, 10cm, 샘김, 권진아, 오조 등이 함께 한 공연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산골영화제 기간 중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람객 소지자에 한해서만 영화 상영 및 행사(토크, 공연) 공간 이용이 가능했으며 방문객 모두 발열체크와 전자출입명부 작성(QR코드 또는 안심콜), 입장대기 절차를 거친 후 입장할 수 있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16일부터 이메일 선착순

군산예술의전당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 '아는 만큼 고고!!!(보고 듣고 즐기고)' 2기 국악감상교육 수강생을 16일부터 이메일 선착순 모집한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은 관내 초등생들이 공연을 보다 쉽고 재밌게 관람할 수 있는 Tip을 알려주며 장르에 대한 이해를 눈높이에 맞게 교육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2기 국악 수업은 공연장 관람예절 안내, 국악의 특징 알아보기, 탈춤 배우보기, DIY 나만의 국악기 만들어 보기 등의 자기 주도형 수업이 진행되며 특히 이번 교육생들은 연주와 춤 재담 등 전통 연희의 각 분야에서 최고 기량을 가진 연희집단 The 광대의 광대 탈놀이 '반소리 판' 공연의 무료 관람과 연주자와의 만남을 통해 국악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했다.

한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가족클래식, 국



악, 연극, 뮤지컬, 가족클래식의 수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내 초등생은 누구나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 나상목 선생 '완벽完壁, 그 첫걸음'

벽천미술관, 소장품 선별해 8월 15일까지 전시

벽천미술관은 전북의 대표 화가 나상목(羅相木, 1924~2001) 선생의 소장품을 선별해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기획전 '완벽完壁, 그 첫걸음'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나상목 선생이 스케치를 통해 작품에 표현하고자 했던 노력과 고민을 조명하고자 마련하였다. 전시에는 나상목 선생이 기증한 소장품 가운데 스케치 작품 30여 점을 주제별로 선정해 선보인다.

나상목 선생의 스케치 작품은 산수화가 주류를 이루며 그 외에 화조화, 인물화, 동물 등이 주제로 다루어졌다. 처음에는 인물을 그리기 위해 많은 인물 스케치와 크로키 등을 묘사했지만, 모델을 구하는 문제가 쉽지 않아 주제가 풍경화와 산수화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한다.

나상목 선생은 생략·과장·정리 작업을 통해 사생된 대상을 선택해 구성, 보완하면서 자신의 회화 양식 기법을 수립했다. 대상의 섬세한 스케치와 더불어 서양의 명암법을 활용하여 묘사나 채색을 함으로써 화면에서는 사물 자체의 양감뿐만 아니라 작품의 전체적인 공간감을 고조시켜 동·서양의 기법을 종합한 절충주의 성격을 보인다.

나상목 선생은 작품의 완벽을 추구해 여러 종류의 스케치를 남겼다. 사생한 대상을 작품에 옮겨 재구성하고, 대상을 묘사하며 받은 미적 감흥이나 느낌을 그의 의식과 함께 표출시켜 작품을 구성하였다. 대상



벽천미술관은 전북의 대표 화가 나상목 선생의 소장품을 선별해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기획전 '완벽完壁, 그 첫걸음'을 개최한다. (선현, 1955년)

을 면밀히 관찰하고 연구하는 모습에서 완벽을 위한 그의 첫걸음을 살펴볼 수 있다.

2021년 벽천미술관 기획전, '완벽完壁 그 첫걸음', 벽천 나상목 선생의 사유세계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스케치를 통해 작품을 위한 작가의 고민과 노력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제=곽노태 기자

## 원광대 박물관, 개교 75주년 기념 작은 전시회 진행

원광대학교(총장 박명수) 박물관은 개교 75주년을 기념해 일반인들이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작은 전시회를 마련해 1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1층 전시실에서 진행한다.

'길상(吉祥) 복을 수놓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조선시대 실패와 귀주머니, 두루마리 등 총 22점이 전시된다. 우리 옛 선조들은 음양오행 사상을 기초로

황(黃)·청(靑)·백(白)·적(赤)·흑(黑) 등 다섯 가지 색을 사용하여 불건을 장식했으며, 천연에서 재료를 얻어 빛깔이 선명하고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이 전통색은 단순히 색채로 서만이 아니라 액운(厄運)과 귀신을 쫓는 벽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 오방색 실로 복을 상징하는 모란, 학, 십장생 등 길상문을 수놓음으로써 가족의 건강과 부귀, 인성을 기원했다.

전시회를 마련한 박물관장 이다은 교수는 "가족과 친구, 지인의 무탈함을 더 없이 바라는 게 되는 요즘,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선조들이 사용한 길상문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좋겠다"며 전시회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역사회 문화유산을 연구할 목적으로 1988년 개관한 원광대 박물관은 1987년 6월 지하 1층에 지상 4층, 연면적 6,076㎡ 규모의 종합박물관으로 건립돼 구성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특별 전시회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